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쿠바 총선과 포스트혁명 세대의 등장

박수경

‘카스트로’라는 이름이 사라져간다

2006년 8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피델 카스트로를 대신해 임시로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라울 카스트로가 2008년 정식으로 국가평의회 의장에 취임했다. 그는 5년 임기를 두 차례 거치고 2018년을 맞이했다. 그 사이 2016년 11월 25일 피델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2018년 3월 11일 총선이 실시되어 605명의 국회의원이 제9대 국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4월 19일 열린 국회에서 미겔 디아스 카넬(Miguel Díaz Canel)이 국가



2신임 국가평의회 의장 미겔 디아스 카넬(왼쪽)과 라울 카스트로(오른쪽)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를 이끌었던 카스트로는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퇴장했다. 라울 카스트로가 여전히 쿠바 유일 정당인 공산당 제1서기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쿠바의 향방을 살피려면 카스트로가 아니라 디아스 카넬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라울 카스트로의 후계자로 예견되었던 디아스 카넬이 의장으로 선출된 후 세계 각지의 언론은 카스트로 시대의 막이 내리고 ‘포스트혁명’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카스트로가 아닌 첫 번째’ 지도자의 등장

비틀스를 좋아하는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디아스 카넬은 쿠바 혁명 다음해인 1960년 비야클라라 주의 주도인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났다. 오스트리아 이주민의 후손으로 건장한 몸집에 푸른 눈을 가진 그는 비야클라라주를 정치적 활동무대로 성장했다. 1982년 라스비야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군복무 이후 1985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1987년 청년공산주의자연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해 산티니스타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니카라과로 떠난 그는 그곳에서 청년공산주의자를 조직하고 쿠바정부와 산티니스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1989년 쿠바로 돌아온 후 청년조직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갔고, 1993년 비야클라라주 공산당 지역위원장이 되었다. 소련연방 해체 이후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쿠바에 닥친 경제위기, 즉 ‘특별시기’라는 90년대를 공산당 지역조직 활동을 하면서 보낸 그는 지역사회의 신망을 얻었고, 2003년 공산당 핵심 지도부의 일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2009년 라울 카스트로가 그를 고등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한층 성장한 그는 2012년 내각의 부의장으로 임명되었고, 곧이어 2013년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이 되면서 라울 카스트로의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이처럼 청년공산당원 활동부터 시작하여 쿠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디아스 카넬은 그의 개인적 성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 덕분에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로큰롤을 좋아하고, 탈권위주의적 태도를



2018년 1월 총선 후보자 약력 게시물 (출처: 저자)

가졌으며, 성소수자가 활동하는 문화공간에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참석했다거나, 고등교육부 장관 시절 컴퓨터 및 디지털자료화와 같은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일화들이 회자된다. 이러한 탈권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더 큰 변화를 기대하는 만드는 쿠바를 향한 국제사회의 바람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의 개혁적 성향이 쿠바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된다. 그러나 국가수반의 교체로 예상되는 한 국가의 변화는 개인의 성향에서 유추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쿠바처럼 단일정당체제로 선거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것은 그의 정치적 행보나 발언 또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밟아온 궤적을 따라 그가 나갈 길을 그려보는 것 뿐 이기에 쿠바 총선 이후의 많은 논평이 ‘카스트로가 아닌 첫 번째’로서 디아스 카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이유로, 즉 선거경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쿠바가 밟아온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방향을 급선회하지 않을 인물만이 쿠바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디아스 카넬의 신중함과 차곡차곡 눌러 담은 듯한 그의 이력은 이미 변화 속에 있고,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쿠바가 사회주



아바나의 주택. 입구에는 피델 카스트로의 사진과 함께 “말레콘이 마를 때까지 피델과 혁명과 함께”하리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출처: 저자)

의라는 가치로부터 스스로 튕겨져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어 장치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아스 카넬은 또 하나의 카스트로에 불과하리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카스트로가 아닌 첫 번째’ 지도자는 자기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로, 라울 카스트로에서 디아스 카넬로 이어지는 쿠바의 지난 반세기는 하나의 가치이자 경제모델이었던 사회주의의 변화 과정이었다. 이제 3세대가 지나며 경제모델로서 사회주의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나, 가치로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쿠바에서 굳건해 보인다.

라울 카스트로는 경제모델로서 사회주의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고, 이미 주목할 만한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유 휴경지의 토지 이용권을 농민에게 양도하고, 국가 관료를 축소하고, 비농업부문과 서비스부문에서 자영업 및 협동조합에 의한 고용이 허용되었으며, 집과 자동차 거래가 허

용되었다. 이처럼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었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었다. 체감할 수 있는 쿠바 사회의 변화는 2008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인들에게 허용된 이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2년 ‘사회주의와 혁명적 정치 사회 구조는 되돌릴 수 없음’을 확인하는 국민투표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쿠바 사회의 절대적 신뢰가 확인되었고, 16년이 흐른 지금도 ‘사회주의를 되돌리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디아스 카넬은 이미 시작된 쿠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일상적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의 지속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맡았다. 두 가지 책임에 대한 균형 감각이야말로 그가 쿠바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지속을 담보하기 위해 그는 ‘또 하나의 카스트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쿠바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 ‘카스트로가 아닌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카스트로이자 카스트로가 아닌 첫 번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디아스 카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것이다.

박수경 — 고려대학교 시간강사